



제목	이란-페르시아: 바람의 길을 걷다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문학세계사
발행일	2017. 4. 3.
저자	김중식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360
ISBN 또는 ISSN	978-8970758503

내용 요약

이란은 한국과 비슷한 위도에 있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멀게 느껴진다. 이란은 우리와 다른 지층 위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세속국가의 사람들에게 작가는 이란에서의 하루하루는 문화충격의 연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낯섦과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는 여행자에게는 이란은 매혹적인 여행지일지 모른다.

이 책은 주 이란 한국 대사관에서 문화홍보관으로 일한 김중식 시인의 페르시아 문화 답사기다. 이 책은 정보를 담아낸 실용적 목적의 가이드북이라기보다는 한 여행자의 시각으로 하나의 큰 문명을 이해하고자 고투한 흔적을 담은 ‘페르시아 문화 답사기’를 지향한다. 책에서는 이란의 야즈드, 수사, 페르세폴리스, 시라즈, 이스파한, 커션, 테헤란 등 각 도시에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이란의 여성 및 노루즈와 라마단과 같은 이란의 큰 명절에 대해 소개한다.